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 테마로 9월 9일 코엑스에서 열려



일시	9월 9(일) 10:00~19:30
장소	코엑스 전시실 D홀(3F)
테마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 一緒につながろう 友情を未来へ
슬로건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행사구성	무대공연 / 부스전시 / 참가 이벤트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실행위원회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운영위원회
주관사무국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후원	〈한국측〉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일본측〉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SJC),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문의	한국측운영사무국 02-702-7775
공식 HP	www.omatsuri.kr
공식 SNS	페이스북 facebook.com/kjfestivalseoul 블로그 blog.naver.com/kr_omatsuri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j_omatsuri

최대 규모의 한국과 일본 문화교류 행사인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이 9월 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2005년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일한우정의 해'에 시작해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교류는 물론 시민교류, 청소년교류, 스포츠교류, 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올해는 양국 문화교류의 중요한 계기가 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일한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라는 테마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무대공

연과 마당놀이, 전시행사, 이벤트 등이 개최된다.

한일소년소녀합창단의 오프닝 공연으로 축제 시작을 알리는 1부 공식 행사에는 박삼구 한국측 실행위원장과 사사키 미키오 일본측 실행위원장이 참석해 개회를 선언한다.

특히 공식 행사 특별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조선통신사 재현 퍼포먼스'는 성신교린(誠信交隣)의 정신을 상기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약 100명의 출연자들이 참가하게 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의 문화교류 역사를 되돌아보고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23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규선 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은 〈조선통신사를 주목하는 이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조





선통신사가 ‘중합한류의 원조, 문화상호주의의 전형’으로 ‘일본 지식사회에는 자극이었고 서민에게는 엔터테인먼트였다’며 조선통신사 재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조선통신사 재현 퍼포먼스’는 영상으로 담겨서,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Tokyo〉의 개회식 오프닝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즐거운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2부 행사에서는 일한합작제작영화인 ‘대관람차’ 출연배우들의 무대인사가 있으며, ‘더 자두’ 출신의 배우로 영화의 주연을 맡은 강두와 일본 여배우 호리 하루나 등이 참여한다. 이어지는 한국의 한울림예술단, 고래야 국악공연, 일본의 도쿠시마 아와오도리 공연, 일본전통음악 4인조 그룹인 ‘WASABI’, ‘KIKAKUYA’의 일본전통무용 공연 등은 축제의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즐거운 만남’을 주제로 열리는 3부 행사에는 일본의 ‘바칸기병대’와 한국의 ‘부산기병대’의 합동 공연과 ‘한일코스프레’ 공연이 선보인다. 이 합동공연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따뜻한 장면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의 대표적인 무술인 한국의 태권도와 가라테 퍼포먼스도 만날 수 있다. 한국 국기원 태권도시범단과 일본 테이코대학 가라테부가 선사하는 현란한 퍼포먼스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한국 전통음악연주집단인 ‘락음국악단’, 트로트 걸그룹 ‘레이디티’, 일본의 ‘민요걸즈’ 등의 공연도 만날 수 있다. K-POP과 J-POP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도 함께 한다. 일본의 아이돌 댄스그룹인 ‘FlowBack’과 한국 걸그룹 ‘모모랜드’의 공연이 4부 행사의 주제인 ‘즐거운 우리’를 화려하게 완성한다.

전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하는 피날레 퍼포먼스를 통해 서로 우정





을 나누며 축제를 마무리하게 된다.

행사장내 '한일광장'의 '페스티벌 월(Festival Wall)'에서는 방문객의 참여 코너로서 '한일축제한마당 응원 메시지'를 비롯해서 '일한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 1주년 기념 축하 메시지', '도쿄 2020 올림픽 · 패럴림픽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는 등 '함께 이어가요 우정을 미래로'라는 테마에 걸맞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양국의 우정과 번영을 바라는 행사의 의미를 기념한다. 양국 전통의상체험, 일본문화 체험, 종이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 부스도 관람객에게 즐

거운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일본 사케와 한국 명품주가 선보이는 '한일 식문화 체험 부스'에서는 음식에 기반한 양국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를 주관하는 다나카 마사시 운영위원장은 "이 행사는 양국의 자원봉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거쳐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 행사가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우호의 상징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서울 행사에 이어 9월 22일(토)~23일(일) 도쿄의 히비야 공원에서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TOKYO〉가 개최된다.



한국과 일본 우정의 상징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기자간담회 개최

8월 23일(목)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에서 한일축제한마당 기자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는 다카스기 노부야 한일축제한마당 명예위원장 겸 실행위원의 '한일축제한마당의 역사와 발자취' 소개로 시작되었다. 2005년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일한우정의 해'에 대학로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시청광장과 청계천 광장을 거쳐 코엑스 전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되고 있는 한일축제한마당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다.

또, 조선통신사 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한 심규선 한일축제한마당 실행위원이 '조선통신사를 주목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평화와 신뢰 그리고 종합 한류의 원조이자, 지금도 살아있는 조선통신사와 축제, 양국의 민간협력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심규선 의원은 "올 한일축제한마당 공연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조선통신사 재현 퍼포먼스'로서, 한일축제한마당에서 이 같은 재현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통신사가 왕래하던 204년간 두 나라는 정치, 문화적으로 활발히 교류했으며, 평화로운 시대를 보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우정의 상징인 한일축제한마당보다 더 잘 어울리는 것은 없으며, 이 자체가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나카 마사시 운영위원장의 프로그램 소개가 이어졌다. 올해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합작영화 '대관람차'에 출연한 양국 배우의 무대인사와 한국의 아이돌 '모모랜드' 공연으로 더욱 풍성하고 흥겨운 행사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서대문구와 함께 미리 즐기는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9월 9일(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에 앞서, 9월 8일(토) 연세대학교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서대문 구청과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의 주최로 한국과 일본 아티스트의 전통공연을 즐길 수 있는 사전행사가 개최된다. 올해는 한일축제한마당 본 행사에 출연하는 'KIKAKUYA'와 '락음국악단'이 각각 일본의 전통무용공연과 한국의 전통공연을 선보인다(관람 무료).

일시 9월 8일(토) 18:00~ 19:30

장소 연세대학교 금호아트홀 연세

주최 서대문구,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Seoul 운영위원회

문의 서대문 구청 문화체육과 02-330-1438

시모노세키시와 부산광역시의 과거와 미래

시모노세키시(下関市)는 일본 본토의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야마구치현(山口県)을 대표하는 도시 중 하나다. 예로부터 수많은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었는데, 겐페이 전투인 단노우라 전투, 다카스기 신사쿠의 고잔지 거병 사건, 미야모토 무사시와 사사키 고지로가 맞붙은 간류지마의 결투 등이 이곳에서 벌어졌다. 또, 지형적 이점을 살려 예로부터 해운업, 수산업이 번성했으며 근대 포경(捕鯨)의 발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부산광역시와의 교류 역사

한국과 시모노세키의 인연은 조선통신사가 왕래하던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시모노세키시는 한국을 출발한 조선통신사 일행이 쓰시마와 아이노시마섬을 거쳐 상륙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또, 1905년에는 시모노세키시와 부산광역시를 잇는 관부연락선이 취항해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종전을 거쳐 1965년에는 일한기본조약체결 다음 해에 주시모노세키 한국영사관 개설과 더불어 고교생 친선방문이 시작되었다. 1970년에는 시모노세키시와 부산광역시의 교류에 있어 가교 역할을 한 ‘관부페리’의 취항을 계기로 각종 민간단체 사이에 자매결연과 문



화, 경제 면에서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자매도시결연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1976년 10월 1일, 자매도시결연이 실현되었다. 자매도시결연 이후, 10년마다 기념식, 5년마다 기념사업을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행정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활발해진 풀뿌리 교류

시모노세키시와 부산광역시는 자매도시결연을 맺은 이후, 다양한 풀뿌리 교류를 시작했다. 그 가운데 10여 년 전 시모노세키시에서 시작되었고, 시민 주체의 양국 청년 간 국제교류를 대표하는 ‘바칸기병대(馬関奇兵隊)’를 소개한다. ‘바칸기병대’는 시모노세키시에서 요사코이춤을 추는 팀인데, ‘힘찬 시모노세키’를 목표로 하는 남녀노소의 시민 약 40명이 활동하고 있다.

2004년 부산에서 개최된 조선통신사 축제에서 처음으로 해외에 소개된 이후, 거의 매년 부산에서 춤을 선보이고 있다. 바칸기병대가 부산 분들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요사코이’ 음악과 춤의 템포가 부산 분들의 취향과 잘 맞아 서라기보다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부산갈매기’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일부를 편집해 춤을 선보였기 때문으로, 부산 분들이 한층 쉽게 친근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또, 2009년에는 자매팀인 '부산기병대'가 결성되었고, 2010년부터는 부산외국어대학교도 교류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자매팀이 결성되어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문화 교류를 갖고 있다. 자매팀은 일한 양국의 무대에서 함께 춤을 출 뿐만 아니라, 매년 8월 시모노세키시에서 열리는 바칸 축제'에는 '부산기병대'와 '부산외국어대학' 팀이 자비로 참가해 홈스테이 등을 하며 바칸기병대와 함께 요사코이 춤과 시모노세키의 향토 예능인 '헤이케오도리 소오도리 춤'을 추는 등 교류를 하고 있다.

시모노세키시와 부산광역시는 스포츠 교류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자매도시결연을 계기로 시작된 '관부 친선 정구 대회'는 매년 시모노세키시와 부산광역시가 번갈아 가며 대회를 개최하는데, 교과서 문제 등으로 일한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도, 태풍 등으로 개최가 무산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중단 없이 해마다 이어져 왔다. 자매도시결연 40주년이던 2016년 대회에는 시모노세키 시장이 부산시정구협회에 감사장을

수여했고, 부산시정구협회는 40년 동안 빠짐없이 참가한 선수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연식 정구 말고도 검도, 요트 등 다방면에 걸쳐 스포츠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교류

2016년 자매도시결연 40주년을 맞으면서, 양시는 어릴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소꿉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으며, 행정이 관여하지 않아도 민간 주도, 시민 주도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부산 분들의 시모노세키시에 대한 인지도는, 페리가 취향하고 있어 중노년층에서는 시모노세키시를 잘 알지만, 청년층에서는 후쿠오카(福岡)나 오사카(大阪)에 비해 잘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소개한 '바칸기병대' 같은 청년 중심 교류가 더 늘어나도록 문화 교류와 청소년 교류에 적극적인 지원과 PR을 도모해 가고자 한다.

(집필 : 시모노세키시, 협력 : CLAIR, Seoul)



Cool Japan!

일본 지방의 매력 발굴과 지역활성화 시찰

일본 외무성의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 2018'의 일환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선발한 한국의 대학생 36명(인솔자 2명, 학생 34명)과 고등학생 32명(인솔자 2명, 학생 30명)이 9박 10일 일정(대학생 : 2018년 7월 10일(화)부터 7월 19일(목)까지, 고등학생 : 2017년 7월 24일(화)~8월 2일(목)까지)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지방의 매력 발굴과 지역활성화 시찰'이라는 테마 아래, 대학생단은 와카야마현(和歌山県)을 중심으로 오사카부(大阪府), 효고현(兵庫縣) 고베시(神戸市), 나라현(奈良県) 등의 간사이 지역을 방문했고, 고등학생단은 기후현(岐阜県)을 중심으로 아이치현(愛知縣), 시가현(滋賀縣), 교토부(京都府), 오사카부(大阪府) 등의 여러 도시를 방문해 'Cool Japan'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본의 일반 가정생활을 직접 체험해보는 홈스테이, 학교 방문, 기업 방문,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체험 활동(기슈 빙초탄(紀州備長炭)으로 풍경 만들기, 일본 양초 그림 그리기)과 유카타(浴衣)입기, 다도(茶道)체험 등 일본의 전통 문화 체험이 마련되었다. 또 일본 학생들과의 필드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귀국한 후, SNS 등을 통해 일본의 매력을 한국에서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래의 주소에서 Cool Japan 리포터들의 생생한 일본 방문 포스팅을 확인할 수 있다.

Cool Japan리포터 네이버 공식 카페 (일본의 매력을 발견하는 Cool Japan 리포터, <http://cafe.naver.com/youthexchangejprk>)

새로움과 소중함

최수빈 청주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충청북도 일본문화퀴즈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JENESYS 2018'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축하보다 고3이 이렇게 장기간 해외에 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이번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배웠던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확인해 보는 기회이자, 내 꿈을 향한 하나의 큰 도약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정말 알차고 모든 활동 하나 하나가 좋아서, 전부 언급하고 싶었지만, 이 가운데 내가 느꼈던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첫째, 나의 꿈에 대한 확신이다. 참여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일본과 관련된 진로를 꿈꾸듯, 나도 일본문학과 관련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길이 내 길인지 확신이 없었고, 불명확한 진로에 불안했었다. 하지만, 이런 내게 큰 변화를 준 것은 바로 교토부 우지시(京都府 宇治市)에서의 체험이었다.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배경지로 유명한 우지시에서 다도 체험을 한 후, 일본인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유카타'라는 일본 대학생이었는데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친구였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겐지모노가타리와 일본 대학생이 생각하는 일본 문학 등 깊이 있는 대화를 하면서, 일본의 고전 문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고, 더 공



부해보고 싶어졌다. 유카 씨는 독서를 좋아하지만, 아직 한국 소설은 읽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구조키타(郡上北) 고등학교 학생과의 교류 때도 한국 문화는 좋아하지만, 한국 문학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던 것이 생각났다. 한국 문화나 K-POP은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반면, 아직 주목 받지 못하는 '문학'이라는 장르가 안타깝게 느껴졌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일본 문학과 한국 문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소개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어졌다. 내가 우지시에 안 갔다면, 유카 씨와 겐지모노가타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지시에 가서야 나는 내 꿈을 확신할 수 있었다.

둘째, 일본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사실,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홈스테이'였다. 나는 신타니 씨 집에서 지냈던



데, 정말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다. '구조 하치만성(郡上八幡城)'과 '메이호 민속자료관'도 함께 관람하며 구조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홈스테이를 하면서 일본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었다. '고헤이 떡', '은어구이' 등 한국에서는 먹어볼 수 없는 것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히야시츠키(冷し中華)'였다. 일본인들은 이 음식이 음식점이나 편의점에 나오면 여름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의 '냉면'처럼 일본 여름을 대표하는 음식을 직접 먹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홈스테이 첫날 '구조오도리(郡上おどり)'라는 마쓰리가 열렸는데, 춤추는 사람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다. 내가 가장 놀랐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춤을 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곡목이 바뀔 때 마다, 사람들은 음악과 하나가 된 것처럼 춤을 추었다. 자기 고장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춤사위가 정말 멋있었다. 이렇게 홈스테이를 하면서 마



쓰리도 보고, 일본의 가정식도 먹으면서 책으로만 보던 일본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새로운 인연을 쌓고,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며 상대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멀게 느껴지던 일본과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은 내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다.

새로운 만남, 새로운 경험, 새로운 장소 그리고 드디어 찾게 된 새로운 시작. 지금은 그 새로움이 '소중함'으로 바뀌어 소중한 만남, 소중한 경험, 소중한 장소 그리고 소중한 시작이 되었다. 이 소중함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미래의 나와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힘쓰려 한다.

이런 기회를 준 JENESYS 2018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은 물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환대와 배려'가 주는 감동과 양국의 소통에 대해

장현아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자신이 생각하는 일본의 매력은 무엇인가?' Cool Japan 리포터로 마주하게 된 첫 질문이었다.

나는 전통 보존, 언어, 아름다운 전통 의상, 독특한 먹거리와 재난

에 대한 완벽한 대비 등 일본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일본으로 떠났다.

첫날의 오사카 방문을 시작으로 와카야마, 나라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느낀 일본의 매력은 '환대와 배려'로 함축할 수 있었다.

'환대의 문화'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라는 단어가 있다. 이는 진심을 담은 환대 문화를 뜻한다. 나는 9박 10일의 일정 속에서 Cool Japan 리포터를 준비한 분들의 노력을 느끼며 '오모테나시'의 가치를 직접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와카야마 홈스테이에서 보낸 시간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우리 조가 배정된 홈스테이는 할머니와 4마리의 고양이가 사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더운 날씨에 몸도 아프시고, 일정을 진행하기가 힘드셨을 텐데,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었다. 물놀이를 위해 가지런히 준비된 4절레의 슬라이더, 한 상 가득 정성껏 만들어진 음식과



간식, 혹은 심심할까봐 준비한 수제 팔찌 만들기 키트 등 아낌없는 환영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덕분에 2박 3일간 친 가족이 된 것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마지막 날에는 외할머니 댁을 떠나는 것처럼 울컥해서 조원 모두가 할머니와 함께 울음을 터뜨렸다.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주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 새삼 가슴이 아련해진다.

‘배려의 문화’

일본의 거리는 정말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고, 대중교통 이용 시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하거나 통화하지 않았다. 숙소 자판기에는 손이 닿지 않는 어린이를 위한 버튼이 따로 있었고, 보도블록 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짐을 올려두지 말아달라는 글귀가 적혀있었다. 나아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승강기 버튼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었다. 노약자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함을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특별한 풍경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일상에 스며든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세심한 배려가 있는 일본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9박 10일간의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은 ‘한대’와 ‘배려’를 직접 경험했을 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는 점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인 양국이 서로 소통하면서 ‘한대’와 ‘배려’의 힘으로 감동을 주고 받는다면, 더 나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즐거웠던 Cool Japan 리포터로서의 방일 일정을 마무리해 본다.



고대 한국과의 교류 만엽집의 세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8세기 가집인 만엽집을 테마로 한 전시회가 서울과 부산,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를 위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을 찾은 스즈키 야스마사(鈴木靖将) 화백, 스즈키 세이란(鈴木晴嵐) 도예가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대 한국과의 교류 등 만엽집의 세계에 대해 들어보았다.

1999년부터 수 차례 한국에서 전시회를 갖고 계신데, 이번에 '만엽전'을 개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스즈키 야스마사 한국에서는 서울과 부산뿐만 아니라 부여와 강원도, 제주도 같은 각 지역에서 여러 차례 전시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광준 신라대학교 교수님께서 만엽집 한국어판을 출판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20년 전, 최광준 교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만엽집은 한국어 전역이 없으니, 언젠가 번역해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만엽집 가운데 90여 명의 작가가 한반도에서 온 도래인이라는 설을 바탕으로 한 “꽃봉오리~만엽집~도래인과의 인연”이라는 책을 최교수님의 해설과 제 그림으로 출판했습니다. 만엽집에는 약 4,500곡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 실려있는데, 최교수님은 20년에 걸쳐 한국어판을 출판하며 그 생각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을 꼭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서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설마, 책 전면엔 표지로 사용하실 줄은 몰라서 조금 놀랐지만, 매우 기쁩니다.

‘만엽집’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스즈키 야스마사 제가 태어난 시가현은 역사적으로 백제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만엽집의 작가 중 한 명인 덴지천황(天智天皇)은 도래인의 매우 뛰어난 문화수준에 매료되어, 시가현의 오쓰(大津)에 ‘오쓰경(大津京)’이라



1999年から何度も韓国で展示会を行っていらっしゃいますが、今回「万葉展」を開催されたきっかけは何ですか。

鈴木靖将 韓国では、ソウルや釜山だけでなく、扶余や江原道、済州島といった地方各地でも何度か展示会を開いてきました。今回の展示会は、崔光準(チェ・グァンジュン)新羅大学教授が万葉集の韓国語版を出版されたことを祝うためのものです。20年前、崔教授に初めてお会いした時、教授は「万葉集は韓国語の全訳がないため、いつか訳してみたい」と話していました。その後、万葉集の中の約90人の詠み人が朝鮮半島から来た渡来人であるという説を唱えた『つばみ「万葉集」ゆかりの渡来人』という本を先生の解説と私の絵で出版しました。万葉集は約4,500集という膨大な量ですが、崔教授は20年もかけて韓国語版を出版し、その夢を成し遂げました。そこでぜひ私の絵を使いたいと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快く引き受けました。まさか本の全面に表紙として使っていただけたとは思っていませんでしたので少し驚きましたが、大変嬉しく思います。

‘万葉集’にご関心を持たれたきっかけは何ですか。

鈴木靖将 私が生まれた滋賀県は歴史的に百済と縁が深い場所です。万葉集の詠み人の一人である天智天皇は、渡来人の大変高い文化水準に魅了され、滋賀県の大津に大津京という都を築いたと言われています。百済の龍雲寺にならった百済寺という寺も滋賀県にあり、遺跡には百済の炊飯器具やオンド



는 도읍지를 세웠다고 합니다. 백제의 용운사를 본뜬 하쿠사이지(百濟寺)라는 절도 시가현에 있으며, 유적 중에는 백제의 취사 도구나 온돌 등의 옛 건축물이 남아있습니다. 그 만큼 고대부터 일본과 한반도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만엽집의 노래에는 백제 문화나 역사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만엽집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 뿌리가 백제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엽집을 테마로 한 작품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즈키 야스마사 만엽집은 노래를 글로 표현한 것으로 좀처럼 내용을 이미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엽집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내용을 좀 더 이미지하기 쉽게 되었고, 그림을 통해 노래 세계를 영상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습관이 생긴 덕분인지, 훌륭한 문학을 만나면 ‘이미지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전시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만엽풍 초상화’를 선물하고 계신데, 반응은 어떤가요.

스즈키 세이란 매우 기뻐해 주십니다. 전시회에서 그림을 볼 때는 좋아하는 그림이 기억에 남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됩니다. 하지만, 초상화를 그려주면 소중히 여기고, 확실히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즈키 야스마사 아마, 만 장 이상은 그렸을 것입니다.

ルなどの遺構が残されています。それほど、日本と朝鮮半島は古代からつながりがありました。また、万葉集の歌の内容には、百済の文化や歴史について語っているものも多く存在します。そうした関連性から万葉集を本格的に学び始め、私のルーツが百済にあることも知りました。

万葉集をテーマに作品を構成されるようになった理由は何でしょうか。

鈴木靖将 万葉集は歌を文字にしたものなので、なかなか内容をイメージしにくいです。そこで、万葉集を絵で表現することにより、人々が物語をよりイメージしやすくなり、絵を通じて歌の世界を映像化でき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字を絵で表現する習性が身に付いたためか、今では素晴らしい文学に出会うと「イメージ化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芽生えます。

展示会を訪れた方々に「万葉風の似顔絵」をプレゼントされていますが、反応はいかがですか。

鈴木晴嵐 すごく喜んでいただいています。展示会で絵を見れば、その時は好きな絵が記憶に残りますが、時間が経つにつれて忘れてしまいます。しかし、似顔絵を描いてあげると、大事にしてくれますし、確実に長く記憶に残ると思います。

鈴木靖将 おそらく一万枚以上は描いてきたと思います。サービスのためではなく、観覧客と交流を図りたいという思いで行っています。「万葉風の似顔絵」をプレゼント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2011年の東日本大震災後、ボランティアで福島を訪問した時がきっかけでした。当初、南相馬市で開いた展示会では、寒さのせいか、観覧客が非常に少なかったです。しかし、ある日、会場を訪れた60代の女性に万葉風の似顔絵を書いてあげました。その女性がお住まいであった仮設住宅に戻られ、周囲に自慢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きっかけに、似顔絵への口コミが広がり、観覧客がどんどん増えました。「万葉風の似顔絵」で大成功を収めたことを契機に、毎年福島で展示会を続けており、今年で7回目となります。

鈴木晴嵐 滋賀県には、大津京時代に壬申の乱によって25歳の若さで亡くなった大友皇子を偲ぶため、多様な色彩の越前和紙を用いた鎮魂の灯りを灯すイベントがあります。東日本大震災以降は、その鎮魂の灯りを福島に持って行き、展示場の駐

서비스가 아니라 찾아주신 분들과 교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만엽풍 초상화'를 선물하게 된 것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자원봉사자로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미나미소마시(南相馬市)에서 열린 전람회에는 한파 때문인지 관람객이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장을 찾은 60대 여성분께 만엽풍 초상화를 그려드렸습니다. 이분이 거주하시던 가설주택에 돌아가서 주위에 자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입 소문을 타면서 관람객이 점차 늘었습니다. '만엽풍 초상화'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매년 후쿠시마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가 7회째입니다.

스즈키 세이란 시가현에는 오쓰경 시대에 진신의 난(壬申の乱)으로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오토모 황자(大友皇子)를 추모하기 위해, 다양한 색채의 에치젠와시(越前和紙)를 사용한 진혼의 등불을 밝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동일본대지진 후, 이 진혼의 등불을 후쿠시마로 가져가서 전시장 앞의 주차장에서 현지 주민과 함께 대지진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진혼의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국의 문화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즈키 야스마사 만엽집에 관심 있는 분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만엽집이 양국간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이런 생각을 담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모두가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수님과의 만남은 양국간 문화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약 4500곡의 만엽을 정리한 책이 나왔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처음 있는 역사적인 위업입니다. 일한중 동아시아 고대인들의 교류에서 탄생한 것이 만엽집입니다. 만엽집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고 있는 일본인이나 한국인은 아주 적습니다. 그 만큼, 이렇게 상징적인 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양국의 문화교류에 있어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車場で現地の方々と共に震災で亡くなった方々に向けた鎮魂の灯りを灯しています。

日韓間では古代から現在に至るまで緊密な交流が行われてきましたが、両国の文化交流についてどのように思われますか。

鈴木靖将 万葉集に関心がある方は極わずかです。しかし、万葉集が日韓の間に深いつながりがあるということを明確に物語っているため、私自身がそうした思いを持って説明すると、皆様非常に関心を持ってくださいます。そうした意味で崔光準教授との出会いは日韓間の文化交流に貢献する上でも非常に大きな出来事だったと思います。韓国語で約4500集の万葉をまとめた本ができたというのは、韓国で初めての歴史的な偉業です。日韓中という東アジアの古代の人々の交流の中で生まれたのが万葉集です。万葉集がどのようなものであるかを認識している日本人や韓国人は極めて少ないと思います。それだけに、このようにシンボリックな本を作れたということは、両国の文化交流においても大変意味深いことだと思います。

에히메현



마쓰야마성

에히메현(愛媛県)은 시코쿠(四国) 섬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북으로는 ‘동양의 에게해’로 불리는 세토(瀬戸) 내해에 면한 평야가 펼쳐지고, 남으로는 서일본 최고봉인 이시즈치산(1,982m)이 우뚝 솟아있다. 인구는 약138.5만 명이고, 면적은 5,676km²이다. 일본에서 5번째로 길고 복잡한 해안선이 있으며, 세토 내해와 우와해(宇和海)에는 200여 개의 섬들이 분포되어 있다. 온화한 기후에 산과 바다가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다. 또, 오야마즈미 신사와 마쓰야마성, 도고 온천을 비롯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많은

문화가 전해지고 있다.

에히메의 특산물

에히메현의 감귤류 생산량은 42년 연속 일본 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요칸 품종을 비롯해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종이 19품종에 이른다. 그 밖에도 키위와 쌀 보리, 참돔과 진주 생산량에서도 일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최고급 감귤인 ‘에히메 킨 스플래시(감평 품종)’, 흑우 ‘에히메 아카네 와규’, 고급 양식 점다랑어인 ‘이요노 히메타카미’ 등 에히메현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도 많다. 또, 현의 70%가 산림지역으로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임산(林産) 현이며, 난요(南予) 지방의 히지카와(肱川) 지역은 상수리 나무가 많고, 원목 표고버섯 재배가 활발하다.

한편, 공산품 중에도 타월 생산액이 일본 내 1위인데, 그 중에서도 이마바리시(今治市)에서 생산되는 ‘이마바리 타월’은 고품질을 자랑하는 브랜드로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 팬을 보유하고 있다. 또, 에도시대부터 제지업이 번성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발전한 미즈히키 세공은 염색실



JR 시모나다 역

로 만드는 전통공예품으로 나가노현(長野県) 이이다시(飯田市)와 어깨를 견주는 양대 산지이다.

에히메의 각 지역

에히메현은 각 지역 별로 산업과 문화적 특색을 갖고 있으며, 지역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다.

도요 지방

도요(東予)는 예로부터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니이하마시(新居浜市)에 있는 벳시 구리광산은 1973년 문을 닫을 때까지 스미토모 그룹의 초석이 되었고, 지금은 그 산업 유적이 '동양의 마추픽추'로 불리며 관광지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시코쿠중앙시(四国中央市)의 제지업과 이마바리시의 타월 등 일본 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제품이 여럿 생산되고 있다.

이마바리시와 오노미치시(尾道市) 사이의 6개 섬을 9개의 다리로 연결한 시마나미 해도(海道)는 일본 최초의 자전거로 해협을 건널 수 있는 총 길이 약 70 km의 자전거 도로를 함께 갖추고 있다. 크고 작은 섬들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기에, 최근에는 사이클리스트의 성지로도 유명하다. 2018년 10월 28일에는 일본 국내외에서 약 7000명이 참가하는 국제 사이클 대회 '사이클링 시마나미 2018'이 개최될 예정이다.

서일본 최고봉으로 표고 1,982m를 자랑하는 이시즈치산은 풍부한 산림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 따라 전혀 다른 표정을 보여 준다. 또, 이 산은 산악 신앙의 성지이기도 하므로 많은 등산객을 불러 들이고 있다. 주봉인 덴구다케에

오르면 이시즈치 산의 연봉과 세토 내해는 물론, 멀리 주국(中国)지방과 규슈(九州)지방의 산까지 조망할 수 있다.

주요 지방

주요(中予)는 시코쿠 최대 도시인 마쓰야마시(松山市)를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지 밀집지역이다. 마쓰야마시에 위치한 도고(道後) 온천은 3천 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최고(最古)의 온천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온천의 상징인 도고 온천 본관은 120여 년 전에 개축되었는데, 대중탕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박물관이 아닌 현역 대중탕으로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일본 국내외로부터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마쓰야마 시내 중심부에 있는 가쓰야마라는 작은 산 위에 축조된 마쓰야마성은 일본에 12곳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에도시대 이전의 천수각 즉 '현존 12천수각'을 보유한 성곽 가운데 하나다.

일본 유일의 망루형 이중 성루인 노하라야구라를 비롯해, 보유 중인 21개의 중요 문화재는 일본 최후의 완전한 성곽 건축으로 평가 받으며 짙은 역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또, 구마고겐정(久万高原町)의 웅대한 시코쿠카르스트 지형과 이요시(伊予市)의 아름다운 해안선 및 석양 등 천혜의 자연 경관도 타고 났다.

일본 3대 가스리(색실로 문양을 만들어 넣은 직물)로 손꼽히는 이요가스리와 목각인형 히메다루마, 솜 위에 색실을 감아 공처럼 만든 히메테마리 등의 전통공예품도 유명하는데, 특히 도베정(砥部町)의 특산물로 순백의 매끈한 표면에 특징적인 아름다운 남색의 그림과 문양이 들어간 이곳 도자기, 즉 도베야키는 개성이 넘치는데도 생활 도기로서 현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난요 지방

난요(南予)는 풍부한 자연과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북고풍 거리와 바다, 마을, 산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개성 넘치는 향토요리 등 에히메 내에서도 독자적인 풍토와 문화가 살아 있는 지역이다.

우치코정(内子町)은 에도 시대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목초 생산이 활발했던 고장으로 그 중심부인 요카



시마나미 해도



도고 온천 본관



가류 산장

이치시(八日市) 고코쿠(護国) 지구에는 당시의 거리 풍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하얀 회반죽과 황토가 만들어 내는 따뜻한 풍경이 해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오즈시(大洲市)의 한복판을 흐르는 히지카와강 인근에 세워진 약 3000평 규모의 산장 ‘가류 산장(臥龍山莊)’은 메이지 시대의 거상이 말년을 보낼 거처로 삼기 위해 지은 별장으로 ‘오즈의 가쓰라리큐’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주변에는 무가 저택과 메이지 시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이 산재해 있어 오즈시는 ‘이요의 작은 교토’라고도 불린다. 가마우지를 길들여 물고기를 잡는 ‘우가이’와 토란탕을 안주 삼아 연회를 갖는 ‘이모타키’ 등 히지카와강 관련 문화도 많이 남아 있다.

우와지마시(宇和島市)는 우와해의 리아스식해안의 특징을 살려 양식업이 발달했는데, 도미와 진주 양식은 일본 1위, 새끼 방어의 양식도 전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이다. 일본 내 최고의 도미를 활용한 향토요리 ‘우와지마타이메시’, 즉 도미 덮밥을 먹기 위해 다른 현에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도 많다.

마쓰노정(松野町)의 나메토코 계곡은, 시만토가와(四万十川) 강의 원류가 12km에 걸쳐 흐르는 대계곡이다. 국립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침식에 의해 생긴 화강암 강바닥이 특징이다. 이런 특징을 살려 최근에는 ‘캐니언’이라는 스포츠가 인기인데, 매끄러운 화강암 강바닥을 도구 없이 미끄러지듯 타고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천연 워터슬라이드라 할 만하다.

또, 난요에서는 예로부터 감귤재배가 활발했는데, 요즘에

는 ‘베니마돈나’와 ‘감평’ 등 에히메현이 원산지인 고급 감귤 재배도 활발하다.

우호 관계

에히메현 마쓰야마시와 경기도 평택시는, 2004년 우호 도시 제휴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학교 교류와 스포츠 교류 등을 통해 양 도시의 우호는 물론 에히메와 한국과의 유대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16년 8월에는 평택시장을 비롯한 대표단 10명이 마쓰야마시를 방문해 마쓰야마 마쓰리에 참가하는 한편, 온천과 예술이 어울린 축제 도고 아트를 관람하고 시내 시설을 시찰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평택시 직원 7명이 마쓰야마 시청을 방문해 관광 시책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에히메로 가는 교통편

2017년 11월부터 제주항공이 마쓰야마공항과 인천국제공항 사이를 주3편(화, 목, 일) 취항하고 있어, 약 1시간 반 만에 에히메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공항에서 마쓰야마시 중심가까지는 전용 리무진 버스를 타고 약 30분이 소요된다. 일본다운 자연, 문화 역사, 음식, 온천을 맛보기 위해 꼭 에히메현을 찾아 주기 바란다. 한국 여러분의 방문을 진심으로 고대하고 있다.

Visit Ehime 에히메 관광정보 <https://www.visitehimejapan.com/ko>
F B ‘환영 에히메’ <https://www.facebook.com/visitehimejapan/>

(집필 : 에히메현, 협력 : CLAIR, Seoul)

일본문화원 리포터

다양한 일본문화 소식을 전하는 ‘일본문화원 리포터(4기)’의 활동이 시작된다!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다양한 일본문화를 취재해서 SNS를 통해 소개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2015년부터 모집을 시작했으며, 대학생, 현직 신문기자, 파워 블로거, 프리랜서 사진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 일본문화원 리포터로서 SNS와 본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올 6월 ‘일본문화원 리포터 4기’를 모집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총 10명을 최종 선발했다. 또 7월 27일(금)에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내년 1월까지 약 7개월 간 매력적인 일본문화와 일본관련 정보를 취재하여 SNS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일본문화원 리포터가 취재한 글은 앞으로 일본문화원 페이스북과 공식 블로그에서 연재될 예정으로 일본여행에 도움이 될만한 유용한 정보나 추천 여행지, 재미있는 일본문화를 소개하는 글을 만나볼 수 있다.

또 이들은 오는 9월 22일(토)~23일(일) 도쿄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서 개최될 ‘한일축제한마당 2018 in Tokyo’의 부스 운영 및 현지 취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며 일본문화원 리포터가 직접 참여한 한일축제한마당 관련 소식과 체험담도 소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일본문화원 리포터의 활약을 일본문화원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Facebook <https://www.facebook.com/j.munwhawon>

Blog <http://blog.naver.com/bunkain>



한일현대조각의 비전

한국의 아시아조각연구회가 주최하는 조각 전시회가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일본 도치기현 오타와라시 예술문화연구소를 통해 구성된 일본 조각가 15명과 아시아조각연구회 소속 한국 조각가 25명이 참가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 조각가들의 상호 교류와 양국의 예술, 문화 교류를 다지고 현대 조각의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 입장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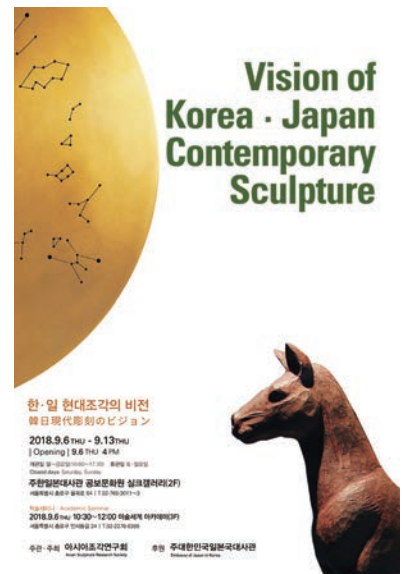
일시 9월 6일(목)~13일(목) 10:00~17: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아시아조각연구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아시아조각연구회 02-337-6799



제18회 일본어연극제 개최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대학생 일본어연극제로서 일본어 원어연극 발표를 통해 학생들의 일본어 능력 향상과 일본 문화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사)부산한일교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다. 관람무료.

참가 대학교 대구대학교 あなたがかける明日 / 계명대학교 ビリギャル / 신라대학교 カラフル

일시 : 9월 2일(일) 14:00~

장소 :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주최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사)부산한일교류센터

문의 :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051-465-5101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 개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행정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여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응모기간은 8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

이 콘테스트는 한일포토콘테스트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국적자에게는 '일본의 매력'을, 일본 국적자에게는 '한국'의 매력'을 테마로 한 사진 작품을 모집하고, 우수작 응모자에게는 양국의 행정기관 및 기업에서 제공하는 푸짐한 상품이 수여되며, 수상작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전시된다.

'한일포토콘테스트'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국민이 사진을 통해 상대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문화교류 및 인적 교류의 촉진과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다.

[일정]

응모 기간(온라인) 8월 8일(수)~11월 7일(수)

결과 발표 11월 28일(수)

수상작 전시 12월 14일(금)~12월 20일(목)

시상식 12월 15일(토)

[참가 대상]

한국 국적자 또는 일본 국적자는 누구든 참가 가능

[제5회 한일포토콘테스트 웹사이트] 응모

한국어 <http://kjphotocon.org> **일본어** <http://jkphotocon.org>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018 일본유학박람회 개최 안내

2018년도 일본유학박람회가 9월 8일(토)과 9일(일) 부산 벡스코와 서울 코엑스에서 주한일본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된다. 자세한 설명 및 상담도 가능하니 일본유학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가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2018 일본유학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e-studyjapa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 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JASSO.Korea>)에서도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일시 9월 8일(토) 10:00~16:00 **장소** BEXCO 제2전시장 3층 5A홀

[서울] 일시 9월 9일(일) 10:00~16:00 **장소** COEX 3층 컨퍼런스룸 E

[내용]

- 일본의 대학(원), 전문학교, 일본어 학교, 고등학교 참가(학교 관계자와 개별 상담)
- 무료입장(사전 예약 필요 없음), 출입 자유
- 전 상담부스에 통역자 배석
- 주거 정보(임대) 및 홈스테이 정보 제공
- 국비장학금 정보, 비자 정보(유킥출리데이 등) 제공(일본대사관, 영사관 담당자와 개별 상담 가능)
- 국립국제교육원의 '한일고등교육유학생교류사업(3차)'에 관한 홍보 및 상담(서울에 한함)
- 일본유학 종합 세미나 실시
- 일본유학(생활, 취업) 체험담

주최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공동주최 전국전수학교각종학교총연합회, 공익사단법인 도쿄도전수학교각종학교협회,

사단법인 한일협회, 사단법인 부산한일교류센터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주부산일본총영사관

협력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한국사무소 02-765-0141, e-mail: jasso@jasso.or.kr



제7회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 (서울대회)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디베이트대회(단, 영남지역 대학은 부산대회 출전)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로 개최된다. 올해의 논제는 '한국은 차고지 증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로 입상자는 외무성이 실시하는 일본 방문 프로그램(JENESYS 2018)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서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은 10월 6일(토)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홈페이지(<http://nihongodebate.wix.com/ko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무료.

일시 9월 29일(토) 10:00~18: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회

문의 한국대학생일본어디베이트대회 운영위원회 nihongodebate@gmail.com



2018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한국예선 응모 작품 모집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2018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한국예선을 실시한다. 이 영화제는 일본 국내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영상제작을 통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예선은 한국 고등학생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작품 응모자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본선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kr.emb-japan.go.jp>

수상자 특징

한국예선에 참가한 3작품의 우수작 제작자 (고등학생 최대 9명)에게는 2018년 11월 24일(토)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카다미시(北見市)에서 개최되는 본선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약 1주일 동안 일본 체류 예정. 일정 중에는 영화제 참석과 일본문화 체험 등을 포함)되며, 우수작품은 본선대회에 출품된다.

응모기간 9월 14일(금) 도착분 유효

심사결과 9월 21일(금) 개별통지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아시아 국제청소년영화제 한국예선' 담당자 앞

주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 (내선 125)



제16회 한일가라오케대회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참가자는 한국어 노래를 부르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참가자는 일본어 노래를 부르는 '한일가라오케대회'가 주한일본대사관 후원으로 개최된다. 폭넓은 연령층의 일본인과 한국인이 참가해 가창력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등을 펼치며 교류와 친목을 다지는 대회다. 서울재팬클럽 주최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정례행사로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 노래에 관심 있는 한국인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응모기간은 9월 15일(토)까지로 예선은 10월 6일(토) 서울재팬클럽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입장무료, 자세한 모집안내는 서울재팬클럽 홈페이지 참조. <http://www.sjchp.co.kr/sjc2/active3/2018/karaoke/trials.html>

일시 11월 3일(토) 14:00~

장소 동자아트홀

주최 서울재팬클럽(SJC)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문의 서울재팬클럽 02-739-6963 <http://www.sjch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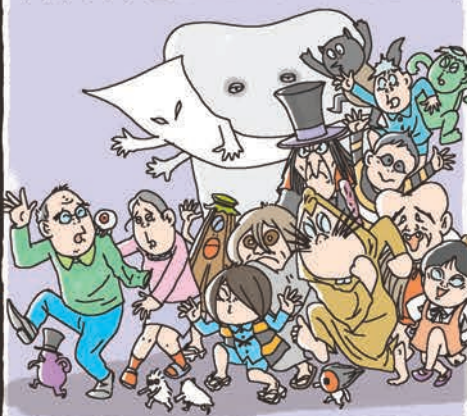
가장고도 먼 이혼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신동작과 작중인물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코난 공항에 이어 돗토리현에는 만화 주인공의 이름이 공항의 이름이 된 또 다른 공항이 있다. 일명 요나고 기타로(米子鬼太郎空港) 공항이다.



'계계계의 기타로'를 그린 일본 요괴만화의 1인자 미즈키 시게루는 종이연극인 가미시바이(紙芝居)를 시작으로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의 대표작 계계계의 기타로는 일본 전국에 요괴 붐을 일으켰다.



*미즈키 시게루와 요괴들 총집합.

그는 일본의 유명 출판사에서 아동 만화상을 수차례 수상했을 뿐 아니라, 해외 유명 국제만화 페스티벌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을, 2008 부천만화축제는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작가상을 수상했다. 소신적 논는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귀신 이야기를 계기로 그는 요괴 연구가가 됐다.



*소년 시게루와 논는 할머니.

미즈키 시게루는 폭격으로 왼팔을 잃었는데 요괴나 귀신 이야기 외에도 젊은 시절에 자신이 경험한 전쟁의 비극을 회고하며 만화로 기록했다.



또한 그의 삶은 '계계계의 노보'라는 제목으로 NHK의 연속 TV소설로 드라마화 되기까지 했다. 2015년 다장기 부전으로 93세를 일기로 돌아가실 때까지 현역으로서 펜대를 놓지 않았다.



고향인 돗토리현 사카이 미나토시에는 만화에 등장하는 수백 개의 요괴 동상이 세워져 있고 이 '미즈키 시게루 로드' 속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에는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민거나 말거나 뉴스 - 무심결에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 앞 벤치에 앉았다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린 '네즈미 오토코'에게 화들짝 마음을 빼앗겨 버린 만화가 최모씨, 그날 이후 이 남자의 마성에 포옥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나 뭐라나~ㅋㅋ

